

LH 해심당

고령자와 도시환경을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모델

김성훈
(주)지음플러스 대표

개요

위치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5나길 11
용도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65.70m ²
건축면적	356.56m ²
연면적	1,488.75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6.4m
건폐율	53.56%
용적률	171.4%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설계	(주)지음플러스, 가인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김성훈(지음플러스), 이창민(지음플러스), 윤주호(가인건축사사무소)
시공	한맥종합건설
건축외장 전문시공	(주)엠비케이
파사드 기술지원	포스코스틸리온
파골라 전문시공	(주)고진티엔씨
옥상그린커뮤니티 환경조성 컨설팅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소셜벤처(주)심바이오리빙텍
옥상정원 시공	맛있는 정원 코리아
설계기간	2019~2020
시공기간	2020~2021
공사비	약 28억 원
건축주	LH 사회주택사업단



하늘에서 본 LH 해심당



등네 풍경 속 LH 해심당



©쥬지음플러스, 이훈구



©쥬지음플러스, 이훈구



©쥬지음플러스, 이훈구

상 컬러 포인트가 돋보이는 창가
하 NH 해심당 진입로



©쥬지음플러스. 이훈구



©쥬지음플러스. 이훈구

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1층 쉼터(카페)
하라운지의 벽면녹화



상 정원과 농업이 결합된 키친가든
 하 내부 주거공간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지속해서 존재해 왔다. 하지만 해심당은 지역과 거주민에게 특화된 공간 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이자 볼거리, 그리고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 멋진 장소 또는 건물이 될 것이다.



© 정지연/공간디자인연구소

옥상 키친가든이 돋보이는 LH 해심당

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도심형 공동체 주택

해심당은 고령 사회에 대응하며, 도심 내 공공성 기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하여 임대주택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역에 부여하고자 하는, LH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모델이다.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는 집'을 의미하는 해심당(海心堂)은 기존의 도봉구에 사는 고령 인구가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편의시설과 건강·돌봄 등의 서비스가 연계된 생활형 SOC 공간이 일체화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새로운 주택모델은 고령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층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2층은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 3층은 할아버지, 4층은 고령자 부부 형으로 나눠 세대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특히 층마다 특화된 디자인은 고령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거주할 수 있게 설계되어 LH 최초로 소규모 주택 배리어프리 인증을 취득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다

지상 1층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에 음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쉼터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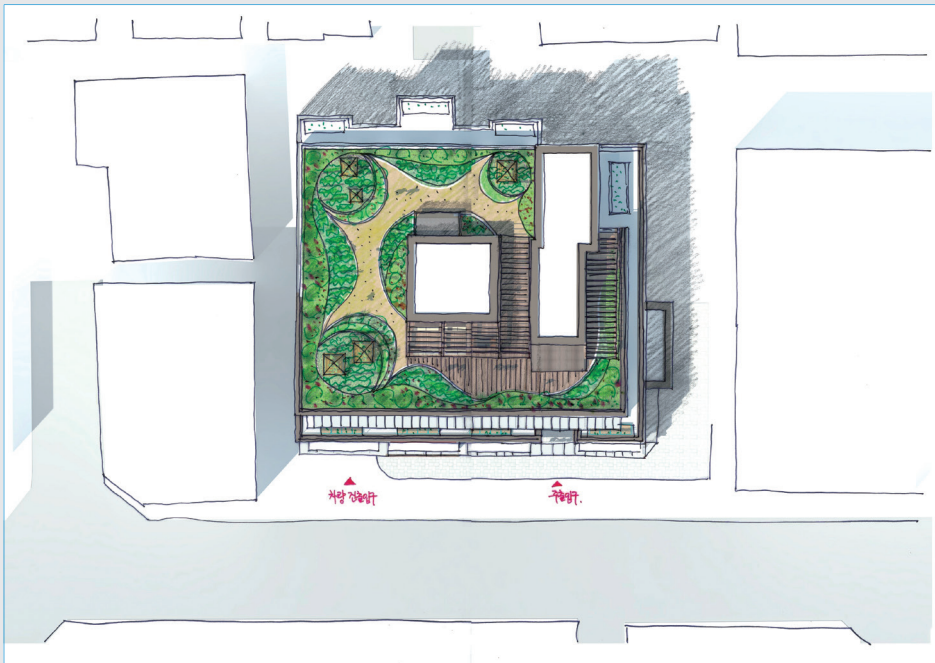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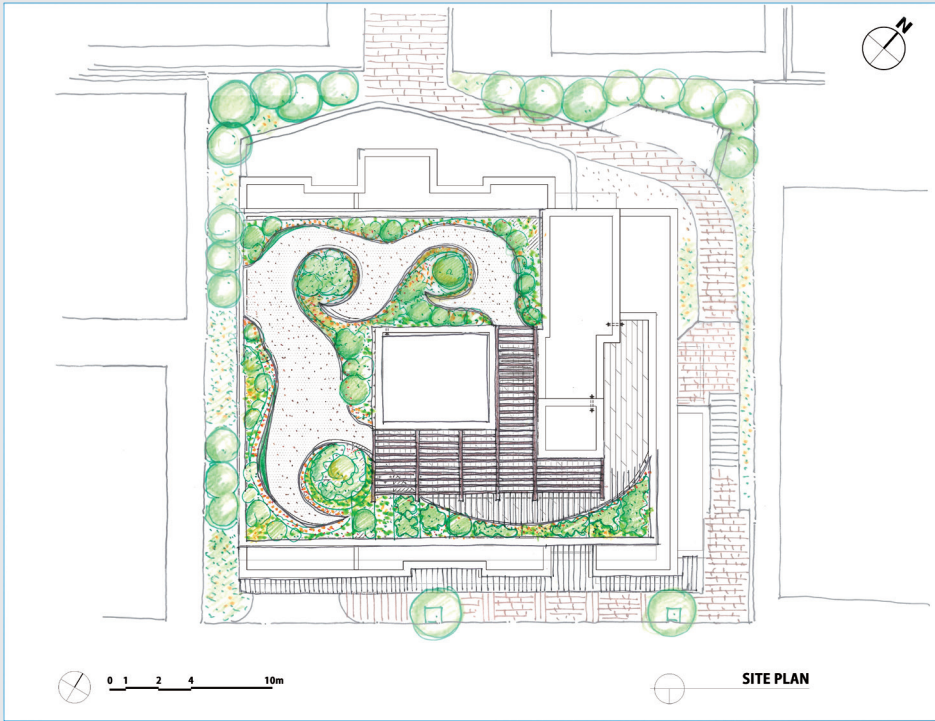
층별 커뮤니티 시설인 공동거실(경로당)에서 휴식을 하거나 교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늘과 맞닿은 천창이 있는 최상층 복도(안마당)에서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옥상 텃밭에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밖에도 동네의 경관과 어울리는 벽돌 마감, 각층에 생활환경 인지 디자인을 적용한 컬러,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포스코스틸리온의 인피넬리(Infyneli) 외부 강판 마감 등을 통해 고령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네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제공하였다.

©주저음플러스, 이현구



상 하늘에서 본 LH 해심당
중 동네 풍경 속 LH 해심당
하 내부 주거공간



마스터플랜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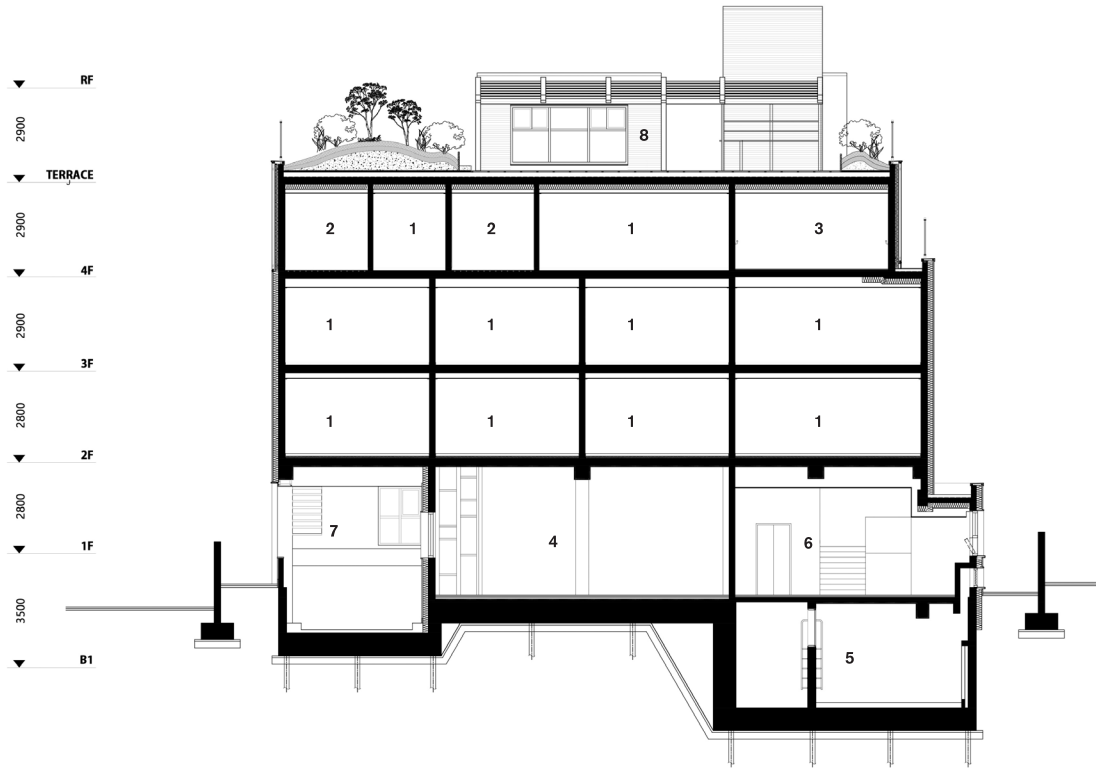
투시도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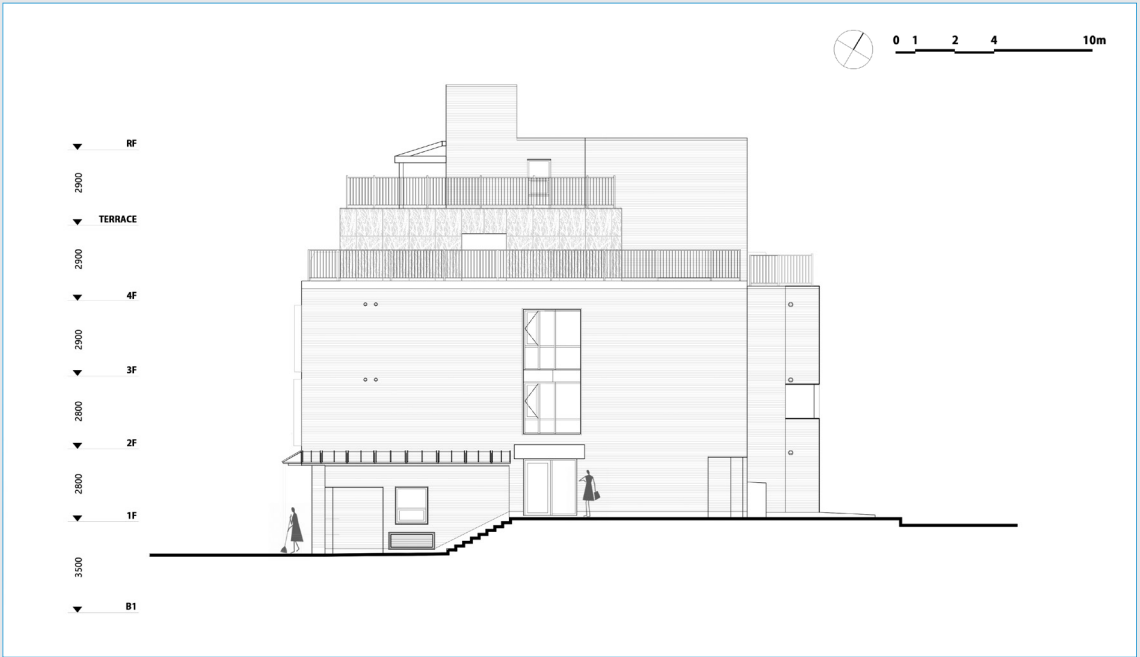


0 1 2 4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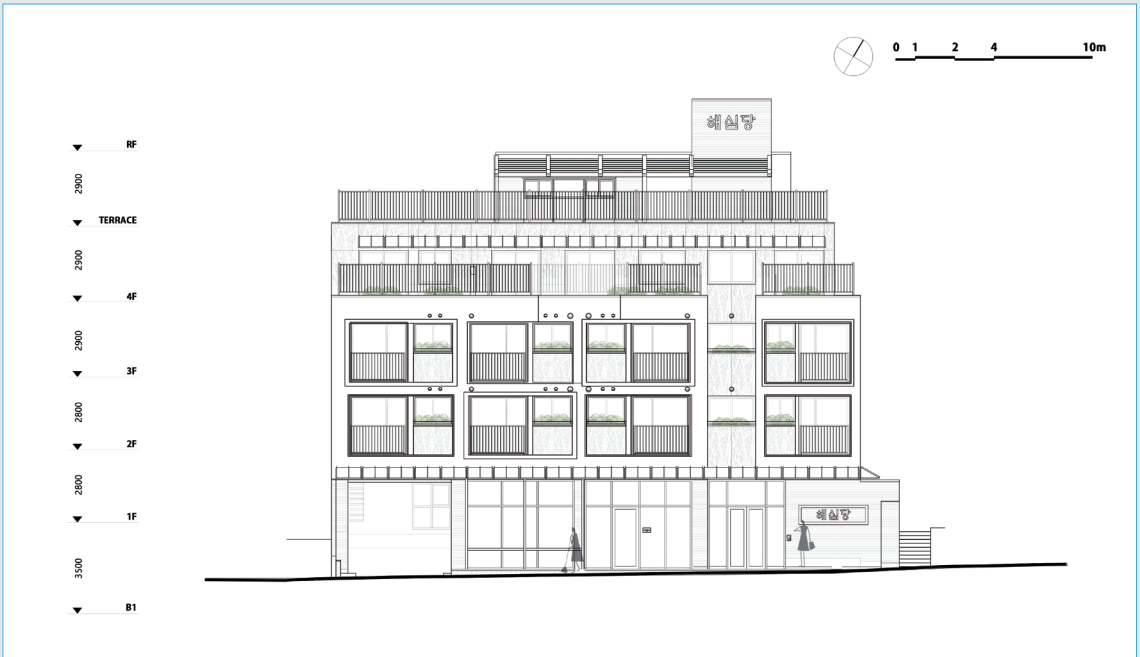


- 1 주거공간
- 2 편의시설
- 3 라운지
- 4 커뮤니티 공간(주민 쉼터)
- 5 기계실
- 6 홀
- 7 주차장 입구
- 8 키친가든

입단면도



서쪽면도



남쪽면도(파사드 계획)



상 정원과 농업과 결합된 키친가든
중 라운지의 벽면녹화
하 지역 주민들을 위한 1층 쉼터(카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택의 새로운 모델

해심당은 아직 국내에는 생소한 바이오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을 건축계획에 반영하였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 기반을 둔, 자연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자연을 현대적인 건축과 어우러지게 하여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한다.

먼저 옥상 정원과 텃밭은 단순한 도시 텃밭과 정원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생물과 식물이 상호작용하는 지속 가능한 정원과 농업이 결합된 퍼머컬처(Permaculture)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비록 200m²의 작은 옥상 공간이지만,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도심 속 정원'의 역할을 한다.

1층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 각층 공용공간에 적용된 벽면녹화는 자연의 환경을 실내에 제공하여 거주민과 이용자들에게 자연의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많은 건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 또는 절감에 비중을 두었다면, 해심당은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녹색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해심당은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건물로서 사회주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공공의 가치, 지역사회와 상생을 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지속해서 존재해 왔다. 하지만 해심당은 지역과 거주민에게 특화된 공간 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이자 볼거리, 그리고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 멋진 장소 또는 건물이 될 것이다.

해심당은 거주민인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생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은다.